

최근 고령층 고용동향 특징과 시사점

이 경 곤*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와 평균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이 가능하며, 그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7년과 9년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1). 고령화 속도가 빨랐던 일본의 경우 각각 24년과 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들어서면서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0년에 만 47~55세인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에서 14.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앞 세대인 1946~1954년생은 8.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4세에 퇴직한 후에도 활발한 부분은퇴 일자리를 가진 후 평균 68세에 완전은퇴하는 점진적 은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하남 외, 2009). 따라서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은퇴러쉬’를 보인다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 세대가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할 경우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세대갈등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leegon@kli.re.kr).

이들 고령층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산업별 고용구조와 임금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연령대별 가계채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구조, 임금 및 소득, 그리고 가계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고용실태와 경제상황을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Ⅲ장에서는 지난 8년간 고령층의 산업별 취업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고용규모와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변화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고령층의 자산 및 부채를 통해 가계채무 상태의 변화를 살펴본다.

Ⅱ. 고령층 취업 현황과 추이

2000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층¹⁾으로 이동하면서 고용의 중심이 40대 이후 연령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른 고령 취업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12년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5,396천 명 증가하였으나,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333천 명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고령층 중심의 고용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 또한 동일기간 사이에 55~64세 취업자는 1,337천 명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84천 명 증가하여 고령 취업자는 총 2,121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2년간 3,525천 명의 취업자 증가 중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고용증가에서 60.2%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취업자 증가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연령대별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고용률 추이를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12년간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 고용률은 59%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별 고용률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별 간 고용률 격차는 상당히 커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평균적으로 23%p 차이를 보이고 있고, 55~64세 고령층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 고용률은 5.3%p 증가

1)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5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연령이 68세 전후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65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표 1〉 고령층의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

| | 15세 이상 | | | 55~64세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2000 | 58.5 | 70.7 | 47.0 | 57.8 | 68.5 | 48.0 |
| 2001 | 59.0 | 71.0 | 47.7 | 58.3 | 69.6 | 47.8 |
| 2002 | 60.0 | 72.2 | 48.4 | 59.5 | 72.1 | 47.6 |
| 2003 | 59.3 | 71.9 | 47.4 | 57.8 | 70.8 | 45.4 |
| 2004 | 59.8 | 72.0 | 48.3 | 58.4 | 71.6 | 45.9 |
| 2005 | 59.7 | 71.6 | 48.4 | 58.7 | 72.2 | 45.7 |
| 2006 | 59.7 | 71.3 | 48.8 | 59.3 | 72.6 | 46.4 |
| 2007 | 59.8 | 71.3 | 48.9 | 60.6 | 74.7 | 46.9 |
| 2008 | 59.5 | 70.9 | 48.7 | 60.6 | 74.3 | 47.4 |
| 2009 | 58.6 | 70.1 | 47.7 | 60.4 | 74.5 | 46.7 |
| 2010 | 58.7 | 70.1 | 47.8 | 60.9 | 75.1 | 47.1 |
| 2011 | 59.1 | 70.5 | 48.1 | 62.1 | 76.5 | 48.1 |
| 2012 | 59.4 | 70.8 | 48.4 | 63.1 | 77.2 | 4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하였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60% 수준을 웃돌고 있다. 고용률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완만한 고용률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 이후 1.4%p 증가하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8.7%p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12년간 전체 고용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55~64세 남성 근로자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인구변동의 특징을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인구변동이 고용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표 2>는 각 산업에서 연령대별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기 위해 각 산업의 모든 연령대별 고용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성하여 2004~2012년간 고용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대부분 산업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5~64세 고령층의 경우에는 제조업(3.1%p), 건설업(6.1%p), 운수업(12.1%p), 숙박 및 음식점업(7.2%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p),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1%p)에서 고용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에 55~6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0.3%p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0%p 증가하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비중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7%p),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4%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4%p), 교육서비스업(-11.3%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0%p)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산업별 고령층의 고용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 부문에서 증가 양상이 같지 않고,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년간 고용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농림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표 2〉 산업별 연령대 비중의 변화 : 2004/2012

(단위 : %)

| | 2004 | | | | | 2012 | | | | |
|----------|--------|--------|--------|--------|-----|--------|--------|--------|--------|-----|
| | 15~29세 | 30~54세 | 55~64세 | 65세 이상 | 전체 | 15~29세 | 30~54세 | 55~64세 | 65세 이상 | 전체 |
| 농림어업 | 2.0 | 33.2 | 28.0 | 36.8 | 100 | 2.2 | 25.2 | 27.7 | 44.8 | 100 |
| 제조업 | 22.1 | 69.5 | 6.9 | 1.6 | 100 | 15.1 | 72.5 | 10.0 | 2.3 | 100 |
| 전기가스수도업 | 15.5 | 78.2 | 3.8 | 2.4 | 100 | 7.4 | 82.9 | 7.5 | 2.1 | 100 |
| 하수폐기물환경 | 14.2 | 65.5 | 16.7 | 3.6 | 100 | 9.3 | 71.4 | 13.4 | 5.9 | 100 |
| 건설업 | 12.4 | 74.6 | 11.5 | 1.5 | 100 | 7.6 | 72.1 | 17.6 | 2.7 | 100 |
| 도소매업 | 23.0 | 63.1 | 9.1 | 4.8 | 100 | 16.9 | 63.7 | 11.9 | 7.4 | 100 |
| 운수업 | 9.1 | 75.8 | 12.8 | 2.4 | 100 | 7.0 | 61.8 | 24.9 | 6.3 | 100 |
| 숙박음식점업 | 18.7 | 69.8 | 9.4 | 2.1 | 100 | 21.3 | 58.7 | 16.6 | 3.4 | 100 |
| 출판방송정보 | 36.0 | 61.3 | 1.9 | 0.8 | 100 | 26.6 | 70.2 | 2.5 | 0.7 | 100 |
| 금융보험업 | 25.9 | 69.2 | 4.0 | 0.9 | 100 | 17.8 | 75.4 | 5.9 | 0.9 | 100 |
| 부동산임대업 | 10.3 | 59.0 | 22.1 | 8.6 | 100 | 6.2 | 57.1 | 23.6 | 13.1 | 100 |
| 전문서비스업 | 34.2 | 61.0 | 3.2 | 1.6 | 100 | 23.8 | 68.5 | 6.0 | 1.7 | 100 |
| 사업지원서비스업 | 18.1 | 47.0 | 26.0 | 8.8 | 100 | 14.6 | 47.7 | 24.3 | 13.4 | 100 |
| 공공행정 | 11.9 | 77.3 | 8.2 | 2.6 | 100 | 7.4 | 69.8 | 14.2 | 8.6 | 100 |
| 교육서비스업 | 34.8 | 59.4 | 5.4 | 0.4 | 100 | 23.5 | 68.2 | 7.3 | 1.0 | 100 |
| 보건사회복지업 | 46.2 | 49.2 | 3.7 | 1.0 | 100 | 27.2 | 59.3 | 9.3 | 4.3 | 100 |
| 예술스포츠여가 | 34.1 | 57.7 | 6.0 | 2.2 | 100 | 30.7 | 58.8 | 7.9 | 2.5 | 100 |
| 개인서비스업 | 18.0 | 66.0 | 12.1 | 3.9 | 100 | 11.9 | 62.0 | 20.2 | 5.8 | 100 |
| 가구내 고용활동 | 1.3 | 50.2 | 34.7 | 13.8 | 100 | 0.2 | 30.8 | 48.2 | 20.8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2012.

Ⅲ.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1.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표 3>은 2004-2012년간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와 고령층의 월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9차 산업표준분류(대분류)를 2004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지난 8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표에서 사용되는 월 임금은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으로 변환된 값이다. 고령층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표 3>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와 임금 : 2004/2012

(단위: 천 명, 만 원)

| | 2004/2012 | | 2004 | | 2012 | |
|----------|------------------|------------------|-------------------|-------------------|-------------------|-------------------|
| | 54세 이하 취업자 변화 | 55~64세 취업자 변화 | 54세 이하 임금의 중간값 | 55~64세 임금의 중간값 | 54세 이하 임금의 중간값 | 55~64세 임금의 중간값 |
| 농림어업 | -295.4 | -87.5 | 119.3 | 59.7 | 141.1 | 75.3 |
| 제조업 | -72.2 | 122.5 | 173.0 | 119.3 | 188.1 | 169.3 |
| 전기가스수도업 | 3.6 | 2.9 | 250.6 | 298.3 | 310.4 | 357.5 |
| 하수폐기물환경 | 23.5 | 1.6 | 202.9 | 161.1 | 178.7 | 159.9 |
| 건설업 | -44.8 | 103.0 | 179.0 | 119.3 | 188.1 | 141.1 |
| 도소매업 | -113.3 | 92.2 | 131.3 | 119.3 | 150.5 | 122.3 |
| 운수업 | 244.0 | 198.6 | 179.0 | 143.2 | 188.1 | 169.3 |
| 숙박음식점업 | -150.8 | 123.7 | 107.4 | 95.5 | 103.5 | 103.5 |
| 출판방송정보 | 94.4 | 6.0 | 214.8 | 202.9 | 235.2 | 297.3 |
| 금융보험업 | 104.1 | 20.4 | 238.7 | 179.0 | 235.2 | 188.1 |
| 부동산임대업 | 32.9 | 14.8 | 163.5 | 95.5 | 169.3 | 112.9 |
| 전문서비스업 | 421.7 | 42.7 | 193.3 | 119.3 | 235.2 | 369.7 |
| 사업지원서비스업 | 430.5 | 92.3 | 143.2 | 95.5 | 141.1 | 103.5 |
| 공공행정 | 183.6 | 71.9 | 262.5 | 119.3 | 254.0 | 263.4 |
| 교육서비스업 | 199.0 | 45.0 | 167.1 | 417.7 | 169.3 | 385.7 |
| 보건사회복지업 | 809.2 | 108.7 | 155.1 | 119.3 | 141.1 | 103.5 |
| 예술스포츠여가 | 63.1 | 11.5 | 107.4 | 143.2 | 136.4 | 112.9 |
| 개인서비스업 | 164.0 | 123.9 | 131.3 | 107.4 | 141.1 | 112.9 |
| 가구내 고용활동 | 41.8 | 36.9 | 65.6 | 59.7 | 75.3 | 75.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4/2012.

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농림어업에서 12만 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에서 8만 7천 명의 고용감소가 있었다.

<표 3>을 <표 2>와 비교해 보면, 고령층 취업자 비중의 변화가 반드시 고령층 취업자 수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또한 취업자 수의 변화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심지어 연령대별로 취업자 수의 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11만 3천 명 감소했지만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9만 2천 명 증가했다. 지난 8년간 고용구조는 산업간 그리고 연령대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은 산업별·연령대별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의 제약에 따른 이단치(outlier)로 인해 임금지급의 격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단치에 영향을 받는 평균값 대신에 연령대별 중간값을 사용하고 있다. 54세 이하에서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44만 9천 원 임금이 인상되었다. 고령층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임금이 하락하였다.

임금수준의 변화는 노동공급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표 3>은 임금수준의 결정이 단순히 노동공급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고용이 크게 늘었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령층 임금의 중간값이 119.3만 원에서 169.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령층의 고용이 역시 크게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119.3만 원에서 103.5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역시 월 급여의 중간값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4세 이하 연령대 역시 고령층에서처럼 취업자 수 변화와 임금수준 변화에 뚜렷한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131.3만 원에서 150.5만 원로 증가한 반면, 취업자 수가 역시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임금수준이 107.4만 원에서 103.5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산업별·연령대별 고용과 임금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산업별 특정 연령대의 고용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취업자 증감은 해당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환경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연령대 이동 또는 인구이동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이와 같은 연령대 이동요인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표 4>에서는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로의 신규진입 취업자 규모와 해당 연령대에서 탈퇴하는 취업자 수를 고려하였다. 신규진입 규모와 탈퇴 규모의 차이는 연령대 이동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 노동시장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를 구할 수 있다.

<표 4>는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외한 연간 취업자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연령대 이동효과를 제거한 후의 취업자 증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취업자 증감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와 유사할수록 취업자 변화가 노동시장 요인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은 취업자 이동 중 연령대 이동효과

<표 4> 55~64세 취업자 증감요인 분석

(단위: 천 명)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농림어업 | -10.6 (23.3) | -32 (-3.8) | -57.9 (-34.8) | -36.8 (-20.8) | -37.9 (-32.9) | -81.9 (-82.1) | -24.7 (-19.7) | -13.7 (5.6) |
| 제조업 | -47.4 (-77.8) | -73.2 (-107.4) | -42.4 (-76.8) | -51.6 (-89.3) | -126.2 (-169.5) | 191.2 (119.1) | 63.2 (2.9) | 14.1 (-50.6) |
| 건설업 | -4.7 (-27.2) | 19.9 (-3.3) | 15.9 (-14.5) | -37.3 (-61.8) | -91.5 (-115.6) | 32.9 (-11.5) | -2.3 (-45.8) | 22.3 (-17.5) |
| 도소매업 | -55.7 (-69.7) | -35.6 (-61.5) | -37.9 (-65.8) | -41.5 (-68.1) | -31.5 (-67.1) | -19.7 (-77.3) | 57.8 (15.7) | 50.8 (21.3) |
| 운수업 | 29.2 (2.5) | 27.8 (4.5) | 54.3 (29.6) | 0.7 (-29.0) | -0.7 (-30.1) | 33.0 (-7.4) | 52.1 (11.1) | 47.5 (20.3) |
| 숙박음식점업 | 0.7 (-23.9) | -8.7 (-32.6) | 0 (-26.8) | -5.3 (-26.9) | -107.4 (-138.2) | -47.3 (-92.3) | -35.6 (-73.1) | 52.9 (17.9) |
| 출판방송정보 | 31.9 (31.0) | 13.1 (11.9) | -16.9 (-20.6) | -7.1 (-10.2) | 25.2 (24.0) | 15.7 (11.3) | 35.2 (28.7) | -2.8 (-7.0) |
| 금융보험업 | 7.8 (3.5) | 40.3 (37.9) | 20.4 (14.1) | 15.3 (6.9) | -55.2 (-60.5) | 41.6 (31.5) | 38 (23.6) | -4.1 (-14.7) |
| 부동산임대업 | 43.5 (45.4) | 3.2 (6.0) | 5.7 (9.4) | -16.6 (-21.3) | 11.6 (8.4) | 16.5 (14.5) | -30.8 (-36.9) | -0.3 (-8.3) |
| 전문서비스업 | 18.8 (16.3) | 55.9 (53.3) | 20.8 (14.4) | 54.7 (49.2) | 87.2 (84.8) | 39.6 (29.2) | 77.4 (68.4) | 67.2 (58.9) |
| 사업지원서비스업 | 56.1 (54.3) | 76.8 (78.8) | 134.7 (131.4) | 20.2 (12.9) | -29.4 (-31.2) | 78.4 (77.7) | 63.8 (53.6) | 29.9 (19.3) |
| 교육서비스업 | 58.8 (47.5) | 98.0 (89.8) | 38.2 (24.5) | 44.1 (29.6) | 47.5 (37.7) | -32.6 (-49.2) | -112.8 (-135.2) | 57.8 (41.6) |
| 보건사회복지업 | 49.3 (45.9) | 41.6 (37.6) | 58.8 (51.7) | 102.7 (98.6) | 155.5 (147.9) | 154.8 (140.9) | 158.3 (143.4) | 88.1 (73.5) |
| 예술스포츠여가 | 37.4 (34.0) | -4.5 (-6.8) | -8.0 (-9.9) | 48.1 (46.3) | -28.4 (-29.7) | -10.7 (-17.6) | 37.2 (33.4) | -7.9 (-10.8) |
| 개인서비스업 | 48.7 (36.7) | 47.9 (36.7) | 72.3 (57.2) | 6.1 (-12.2) | -85.8 (-104.1) | 4.9 (-11.3) | 45.1 (25.4) | 24.7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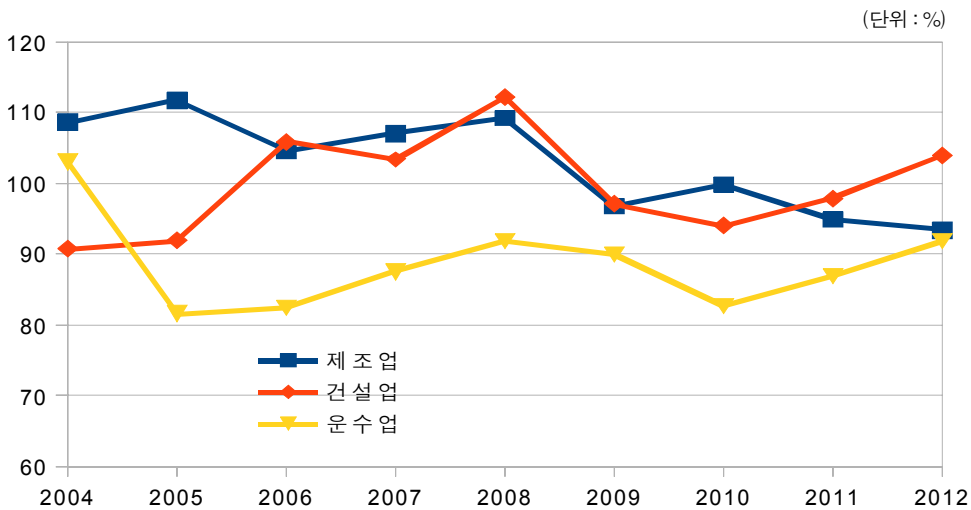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대 증감요인을 제거한 노동시장 요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취업자 증감이 주로 노동시장 요인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결과를 <표 3>의 임금 변화와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 요인이나 인구구조의 요인에 의한 취업자 변화 역시 산업별 임금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연령대 효과가 큰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고령층의 임금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임금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요인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역시 서로 상반되는 임금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특정 연령대의 산업별 임금의 중간값을 통해 산업별 임금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간값 또는 평균값은 해당 산업의 특징이나 그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서 고령층의 임금수준을 30~54세 핵심 근로자하고 비교하기 위해 월 임금을 로그(log)를 취한 로그임금을 사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나이, 나이의 자승, 재직기간, 재직기간의 자승, 교육연수, 성별, 기혼유무, 가구주 여부, 사업장규모, 노조유무 그리고 도시지역 거주유무를 사용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추정된 임금함수를 바탕으로 2004~2012년 동안에 특정 산업에서 30~54세 근로자의 임금 대비 고령층의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점이 종축의 100을 넘을 경우 고령층의 임금수준이 30~54세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높게 평가됨을 의미하는 반면, 100 이하는 고령층의 임금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그림 1] 산업별 30~54세 임금대비 고령층 임금수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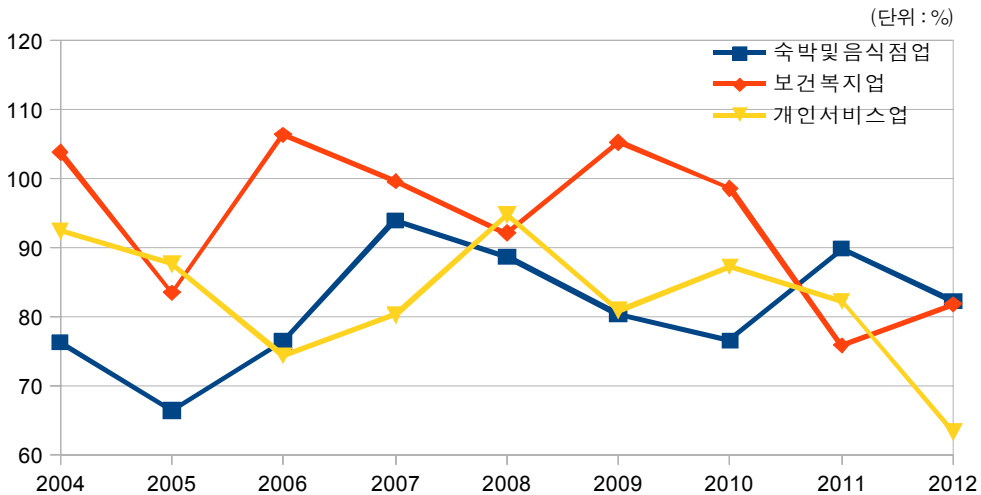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과 [그림 2]는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 30~54세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고령층의 평균임금을 표시했다. [그림 1]에서 제조업은 2008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점차 상대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2006~2008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고, 다른 해에는 낮은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운수업의 경우에는 고령층의 임금수준은 항상 30~54세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비록 이들 산업들의 임금수준은 30~54세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부침이 심하기는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상대임금이 안정적인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008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그림은 산업별 고령층의 상대임금이 시장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2] 산업별 30~54세 임금대비 고령층 임금수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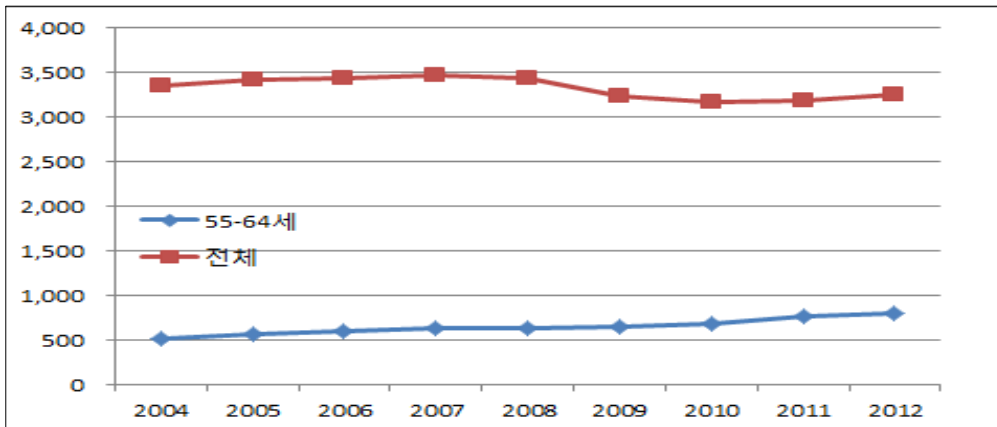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변화

[그림 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2004년 이후 취업자 중에서 가구주 기준으로 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55~64세 연령대의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 종사자 추이를 보여준다.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지만 이

[그림 3] 자영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55-64세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수는 2004년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층의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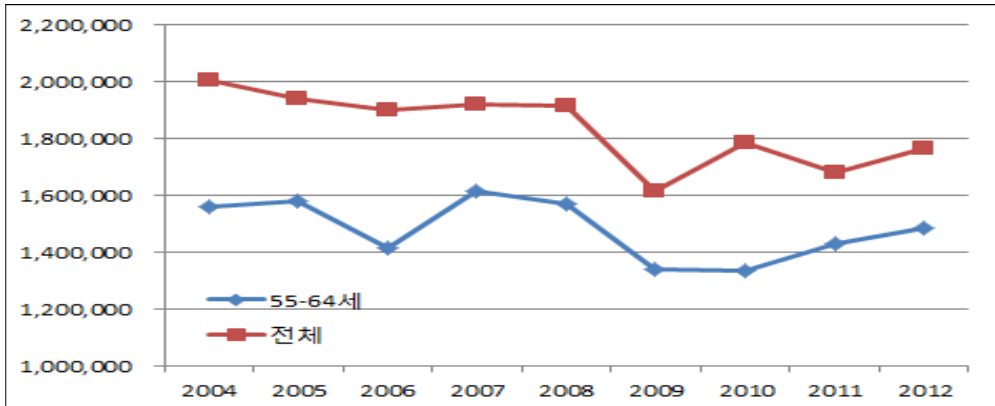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때 월간 사업소득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관측치의 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어 산업별 분류는 하지 않았다. [그림 4]는 2004년 이후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월간 사업소득의 추세를 나타낸다. 물가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전체 자영업자의 월 사업소득은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급락하였다. 또한 55-64세 고령층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월 평균소득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장이동 시 고용형태 전환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직업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금재호(2012)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직장이동을 경험한 재취업 인구 중에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반면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연령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5-64세 자영업 종사자의 하락 추세에 있는 사업소득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열악함

을 암시하며, 전체적으로 자영업의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자영업자의 실질 월사업소득 추이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IV.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 추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은퇴와 같은 노동공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그 중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사용될 노후자금의 크기이다. <표 5>는 연령대별로 2006년과 2012년간 가계재정의 변동을 보여준다.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 가계자산조사」와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였고, 물가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변환하였다. 가계재무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연령그룹별로 고용률을 통해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39~44세 연령대에서만 고용률이 1.2%p 감소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50대의 고용률 증가는 51~56세 연령대에서는 2.9%p 그리고 57~62세 연령대는 3.4%p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가 특정 연령대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고 45세 이상 연령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각 연도별 출생그룹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51~56세 그룹은 6년 후에 부채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다른 가계재무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2006년 57~62세 그룹은 2012년도에 순자산, 자산총액 그리고 경상소득은 감소하였으나 부채총액은 6년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의 가계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표 5〉 연령대별 가계재무 상태와 고용률 변화

(단위: 만 원, %)

| | | 39~44세 | 45~50세 | 51~56세 | 57~62세 | 63~68세 |
|------|------|--------|--------|--------|--------|--------|
| 2006 | 순자산 | 24,997 | 28,382 | 35,204 | 41,791 | 38,719 |
| | 자산총액 | 30,190 | 32,972 | 40,248 | 46,799 | 42,488 |
| | 부채총액 | 5,193 | 4,590 | 5,044 | 5,007 | 3,768 |
| | 경상소득 | 4,658 | 4,604 | 4,560 | 4,066 | 3,766 |
| | 고용률 | 78.4 | 76.8 | 70.7 | 59.1 | 46.0 |
| 2012 | 순자산 | 23,800 | 29,480 | 32,961 | 35,096 | 26,373 |
| | 자산총액 | 29,155 | 36,577 | 40,383 | 41,903 | 31,403 |
| | 부채총액 | 5,355 | 7,096 | 7,422 | 6,807 | 5,030 |
| | 경상소득 | 5,166 | 5,540 | 5,605 | 4,684 | 3,082 |
| | 고용률 | 77.2 | 78.8 | 73.8 | 62.5 | 4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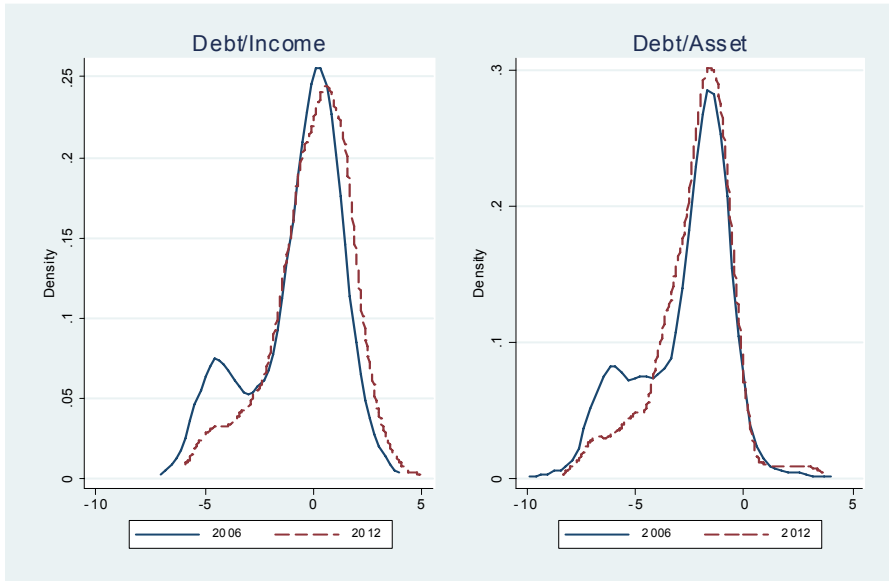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0년 기준 가격으로 변환됨.
 자료: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그룹별로 노동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 가계의 재무상태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소득 비율과 부채·자산 비율을 살펴보았다. 부채·자산과 부채·소득은 상당한 왜도를 가지기 때문에 로그(log)를 취해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변환하였다. 따라서 양(+)인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소득이나 자산규모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음(-)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적음을 나타낸다. 출생그룹별 부채·소득과 부채·자산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커널추정법을 사용하여 가구별 부채·소득과 부채·자산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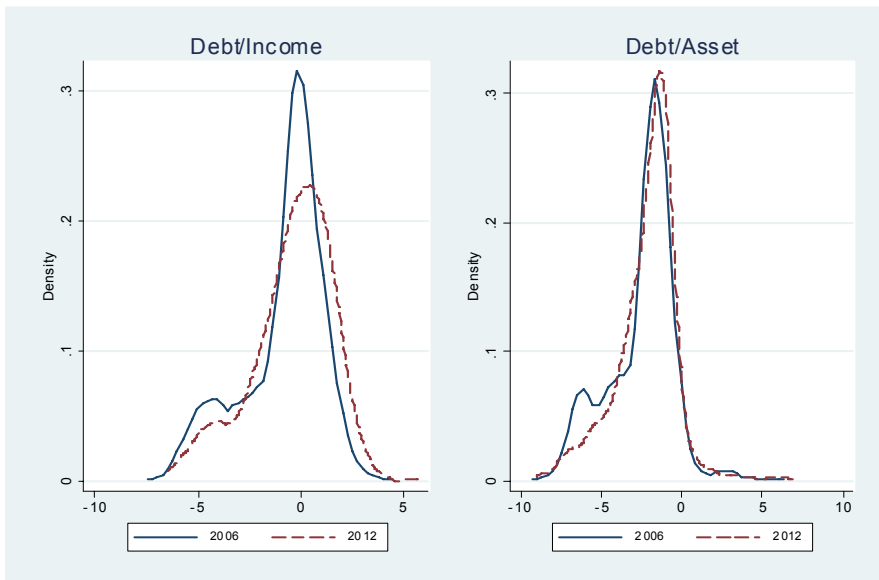
[그림 5]는 1944~1949년 출생그룹, 즉 <표 5>에서 2006년 57~62세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로그 부채·소득 비율과 로그 부채·자산 비율에 대한 확률밀도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은 [그림 5]와 유사하게 1950~1955년 출생그룹의 로그 부채·소득과 로그 부채·자산에 대한 확률밀도를 나타낸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부채·소득 비율은 왼쪽 꼬리 부분이 줄어들면서 분포가 약간 우측으로 이동함을 보인다. 또한 부채·자산 비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부채·소득보다 움직임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난 6년간 가계부채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전한 가계재무 상태가 고령층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지난 6년간 개선되지 않은 고령층의 가계재무는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1944~1949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중 분포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 1950~1955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중 분포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V. 맺음말

최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고령층 취업자 수의 증가이다. 특히 최근 고령층의 고용변화는 55~64세 남성 고령층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별 구성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들 산업에서 고령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령층의 임금수준을 30~54세 취업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령층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제조업 등에서는 임금수준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령층의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간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고령층의 임금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령층 자영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취업자들의 가구당 자산 또는 소득대비 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LI**

<참고문헌>

- 금재호(2012),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강석훈·신동균·안종범·이정우·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_____(2011), 『장래인구추계』.
 _____,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_____,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